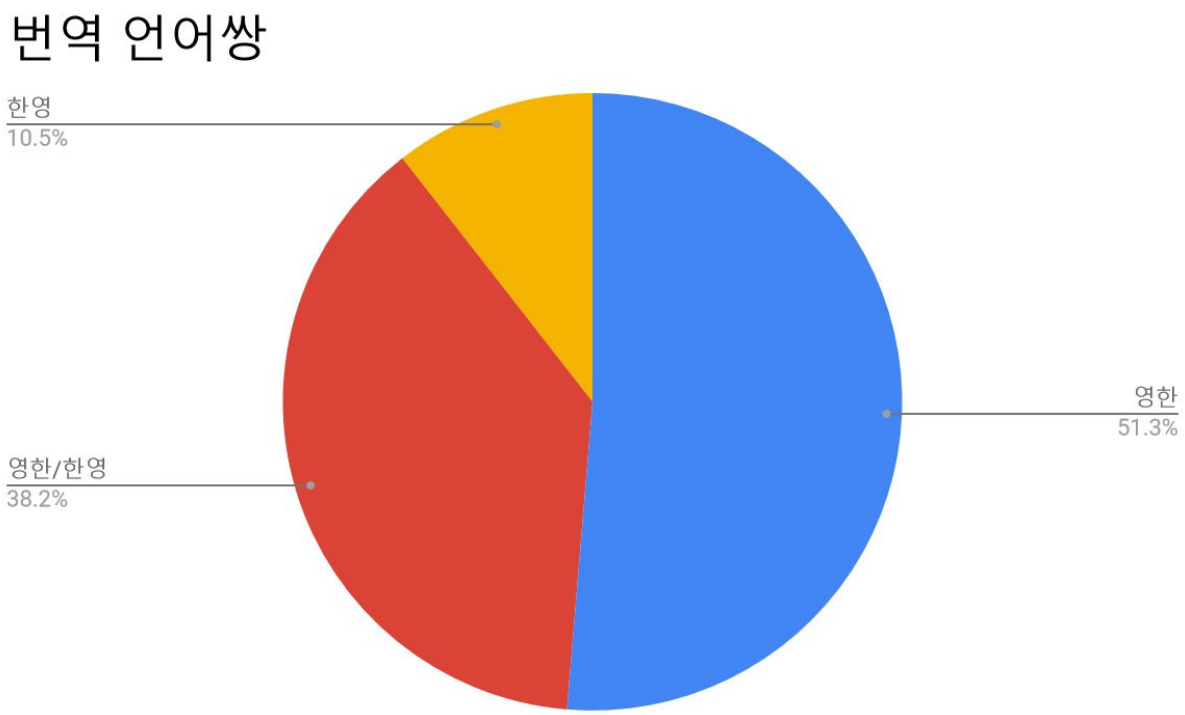
2019 영한-한영 번역가 요율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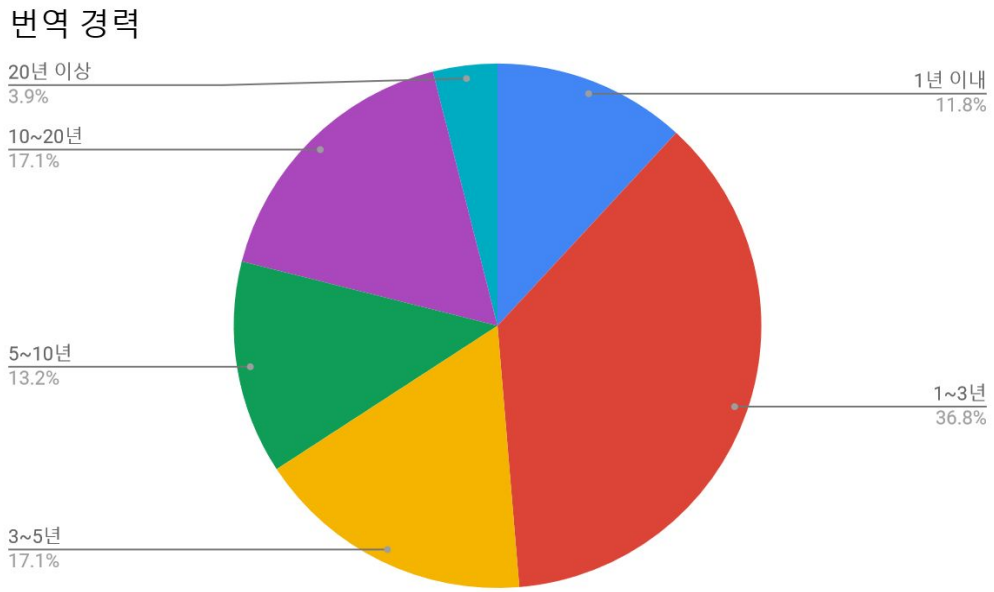
2019년 1월 말부터 3월 5일까지 약 한달간 영한-한영 번역가 요율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프로즈닷컷(PROZ.COM) 회원들에게 개인 메일을 보내 참여를 요청했으며, 본인의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으로 설문참여를 홍보하였다. 전체 참가자는 76명으로 설문조사는 아래와 같다. 현재 영한-한영 번역가의 번역 요율을 가늠해볼 수 있는 자료로 삼을 수 있겠으며 번역가들간에 번역 요율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 이 수치가 완벽하게 현재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그 상황을 가늠하는 자료로 삼길 바란다. 다시 한번 참여해주신 76분의 번역가분에게 감사드린다.

1. 번역 언어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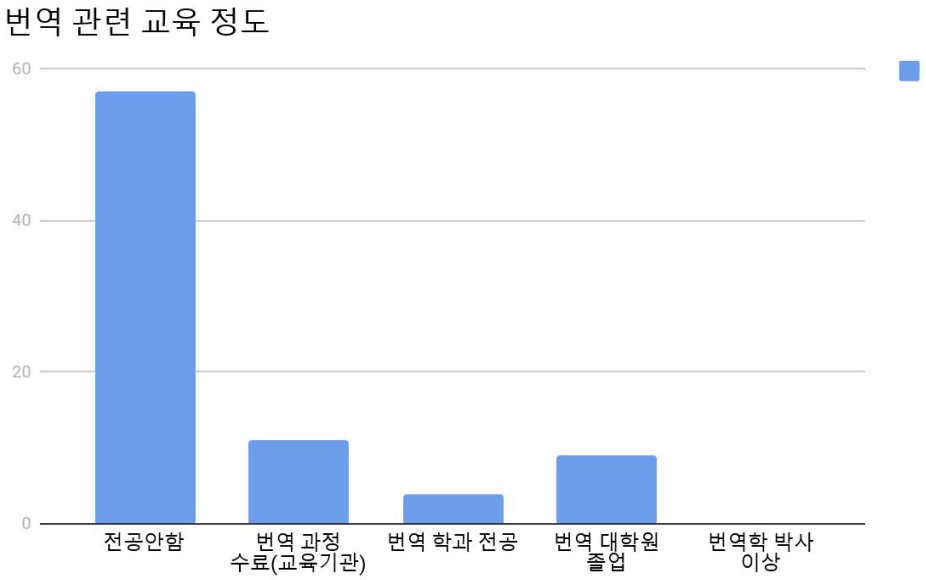
전체 참가자 76명중, 본인이 다루는 언어쌍에 대해 각각 **영한 39명, 한영 8명, 영한/한영 29명으로 응답**하였다. 한영 8명은 한영 언어쌍만 다루는 것을 의미하며 영한/한영 양방향으로 번역을 다루는 것으로 응답한 숫자가 상당히 많음을 볼 수 있다. 양방향으로 번역을 다룬다고 응답하였으나 그 비율이 어느정도로 다를 지는 알 수 없다.

2. 번역 경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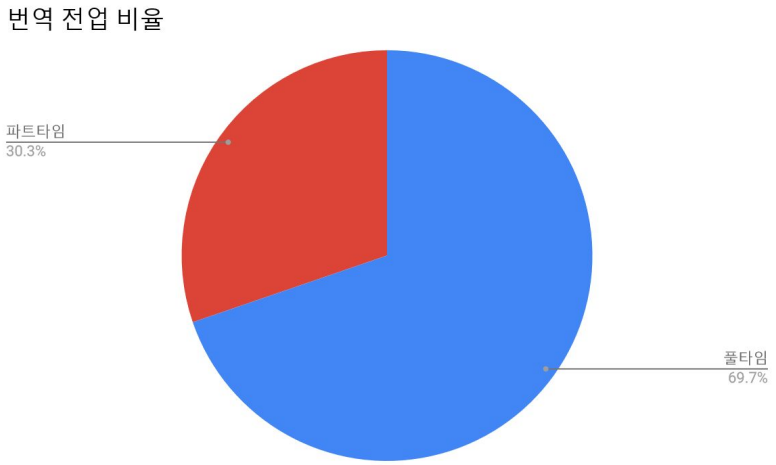
전체 참가자 76명중 번역 경력에 대해 응답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년 이내 9명, 1~3년 28명, 3~5년 13명, 5~10년 10명, 10~20년 13명, 20년 이상 3명으로 응답하였다. 응답자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1~3년차이며 다음으로 3~5년차가 많았다. 1년 이내 번역가는 9명으로 11.8%를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비율을 감안하여 아래 결과를 살펴보면 좋겠다.

3. 번역 관련 교육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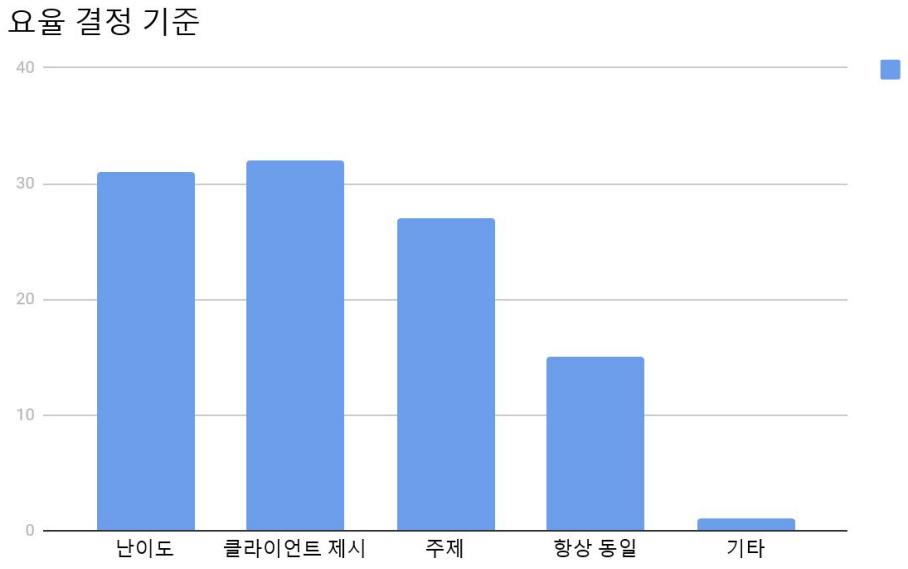
전체 응답자 76명중에 전공안함으로 답한 번역가는 57명이었으며, 번역과정 수료함에 11명, 번역학과 전공 4명, 번역대학원 졸업 9명으로 나타났다. 전공안함으로 답한 수치는 전체에서 75%를 차지하며 나머지 수치는 중복될 수 있다(예를 들어, 번역 과정을 수료하고 번역 하고가를 전공한 경우 등). 전체 비율에서 70% 이상이 전공안함으로 응답한 결과가 인상적이다.

4. 번역 전업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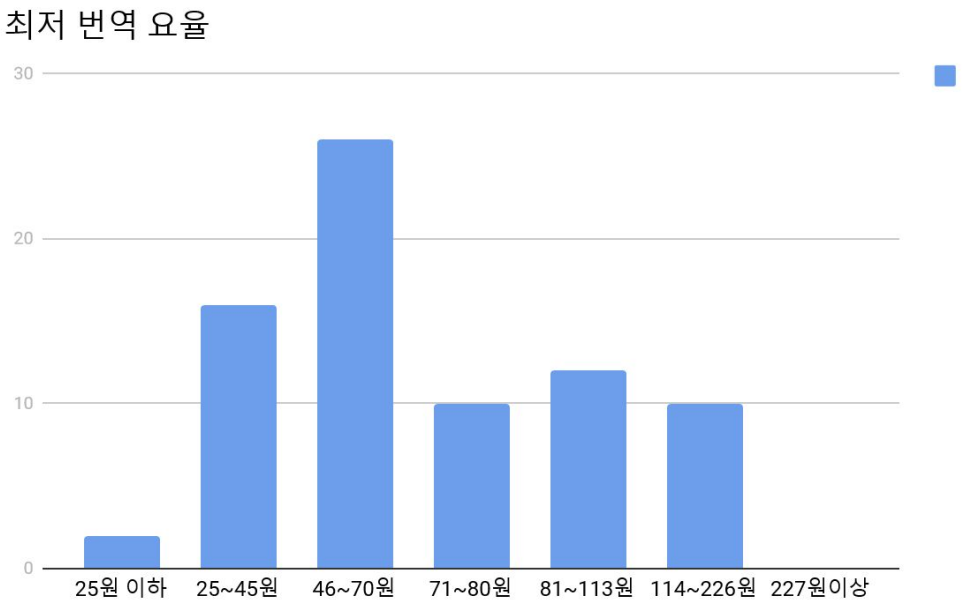
전체 비율에서 69.7%인 53명이 전업 번역가로 응답하였으며 30.3%인 23명은 파트타임 번역가로 응답하였다. 풀타임 번역가 응답자가 약 70% 인 것을 감안하여 다음에 이어지는 결과를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5. 요율 결정 비율



번역가라면 본인만의 번역 요율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초보 번역가의 경우 본인의 번역 요율을 고집하기가 쉽지 않음을 안다. 설문 참자가들이 번역 요율을 결정하는 데 어떤 요인을 기준으로 삼는 지 참고하면 좋겠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번역 요율을 결정하는 기준은 난이도(31명), 클라이언트가 제시(32명)이었고 다음으로 번역 주제 (27명), 번역 요율은 항상 동일함(15명), 기타(1명)이었다. 난이도에 따라 요율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이며 클라이언트가 제시하는 가격에 따르는 비율도 큰 것을 볼 수 있다. 항상 동일한 번역 요율을 책정한다는 응답수도 꽤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이 항목은 중복된 수치를 담고 있음을 참고하기 바란다(예를 들어, 난이도와 주제에 따라 번역 요율을 선택한다고 응답함).

6. 최저 번역 요율



현재 받고 있는 최저 번역 요율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았다.
46원~70원을 선택한 응답자가 2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반면 114원~226원 응답자는 10명, 81원~113원 응답자는 12명이었다.
(응답자 1명은 최저 번역 요율 227원 이상에 답하였고 최고 번역요율에서 80원 이하로 선택한것으로 보아 양쪽 질문을 혼돈한 것으로 보여 해당 결과를 수정하여 적용했다.)
어떠한 요인으로 이런 차이가 나는 지 더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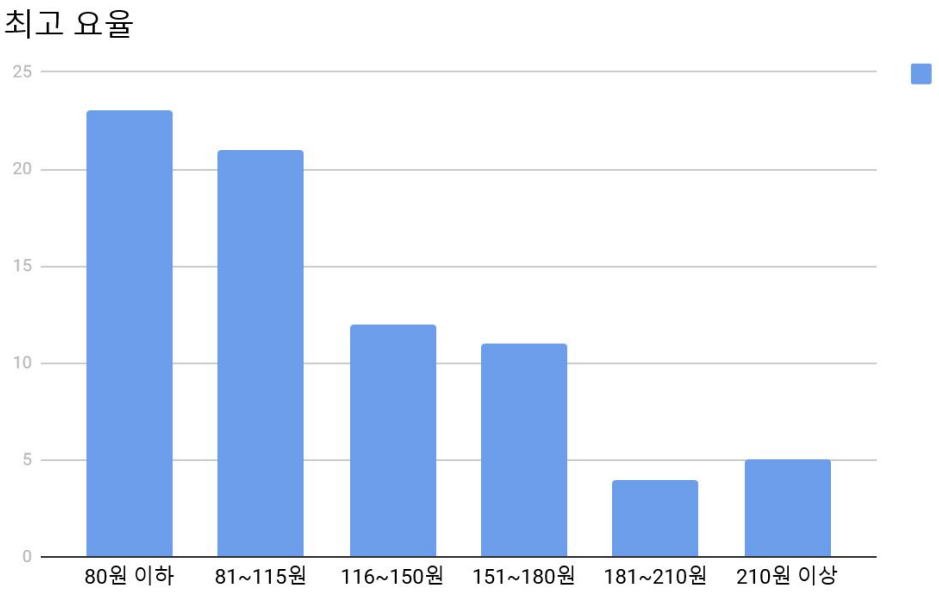
[최저 번역 요율 114원~226원 응답자들 프로필]

	언어쌍	전공여부	경력	최고 요율	번역 분야
A	영 > 한	전공안함	1~3년	116~150원	법률
B	영 <> 한	전공안함	10~20년	151~180원	기타
C	영 > 한	전공안함	10~20년	210원이상	비즈니스, IT, 마케팅
D	영 <> 한	전공안함	10~20년	210원이상	비즈니스, IT, 마케팅, 법률, 의학, 엔지니어링, 특허, 소프트웨어, 기타
E	한 > 영	전공안함	1~3년	210원이상	법률
F	한 > 영	전공안함	20년이상	210원이상	비즈니스, IT, 법률,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G	영 > 한	번역 대학원 졸업	5~10년	151~180원	IT, 마케팅, 기타
H	영 > 한	번역 대학원 졸업	5~10년	151~180원	비즈니스, IT, 마케팅, 소프트웨어
I	영 <> 한	번역 대학원 졸업	10~20년	180~210원	IT, 기타
G	영 <> 한	번역 대학원 졸업	10~20년	180~210원	비즈니스, IT, 마케팅, 법률, 의학,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인상적인 요인에 하이라이트 하였음)

위 표에 의하면, 경력 1~3년차에 법률을 다루는 번역가 2명이 포함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법률 분야가 다른 분야보다 높은 요율로 책정되거나 공급이 적은 상태임을 추측할 수 있다.
영한-한영 양방향 번역을 다루는 응답자의 수가 전체 11명에서 4명으로 양방향 번역을 다루는 것이 보다 높은 요율을 받는 것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번역 대학원 졸업자로 5~10년 경력의 응답자가 목록에 포함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전공을 하지 않았다면 특수 분야(난이도가 있는)를 다루거나 한영 번역을 다루어 비교적 높은 요율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번역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완전히 일반 분야로 보기는 어렵지만 법률이나 의학, 특허 등 특수 분야가 아닌 비교적 일반적인 분야에서 높은 요율을 받고 있음을 볼 수 있다.

7. 최고 요율



현재 받고 있는 최고 요율을 80원 이하로 선택한 응답자는 23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81~115원에 21명이 응답했다. 210원 이상을 선택한 응답자는 5명이었다. 이러한 차이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 지 다시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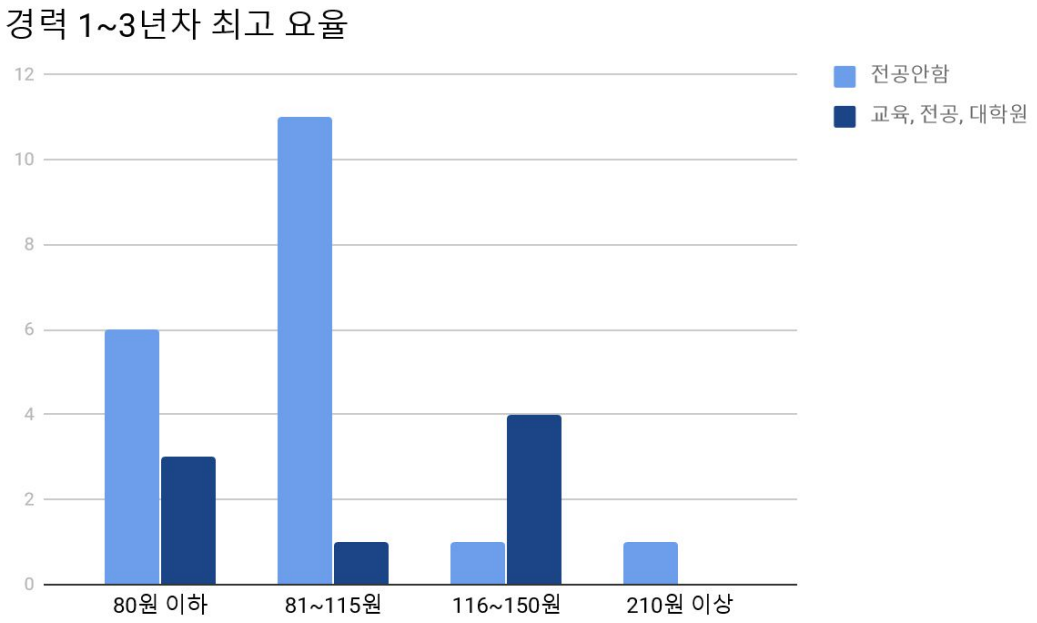
[최고 요율 181~210원, 210원 이상 응답자들 프로필]

	언어쌍	전공여부	경력	최고 요율	번역 분야
A	영 <> 한	전공안함	10~20년	210원이상	비즈니스, IT, 마케팅, 법률, 의학, 엔지니어링, 특허, 소프트웨어, 기타
B	영 > 한	전공안함	10~20년	210원이상	비즈니스, IT, 마케팅
C	영 > 한	전공안함	10~20년	210원이상	비즈니스, IT, 마케팅,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기타
D	한 > 영	전공안함	20년이상	210원이상	비즈니스, IT, 법률,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E	한 > 영	전공안함	1~3년	210원이상	법률
F	영 <> 한	전공안함	10~20년	180~210원	의학, 기타
G	한 > 영	전공안함	10~20년	180~210원	기타
H	영 <> 한	번역 대학원 졸업	10~20년	180~210원	IT, 기타
I	영 <> 한	번역 대학원 졸업	10~20년	180~210원	비즈니스, IT, 마케팅, 법률, 의학,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인상적인 요인에 하이라이트 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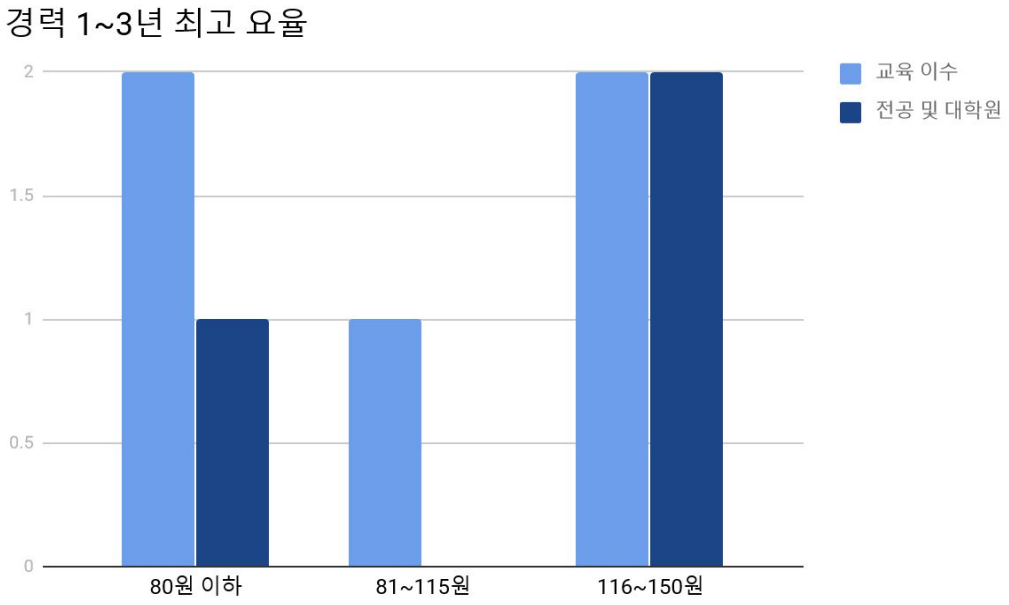
최고 요율을 비교적 높게 받고 있는 응답자의 프로필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 10~20년의 경력을 가진 것을 볼 수 있고 전공안함을 선택한 응답자의 비율도 높았다. 전공을 하지 않았지만 경력이 오래되어 업계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IT 분야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공급이 부족하거나 비교적 높은 요율로 책정되어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교육정도가 번역요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경력 1~3년차 번역가를 교육여부를 기준으로 비교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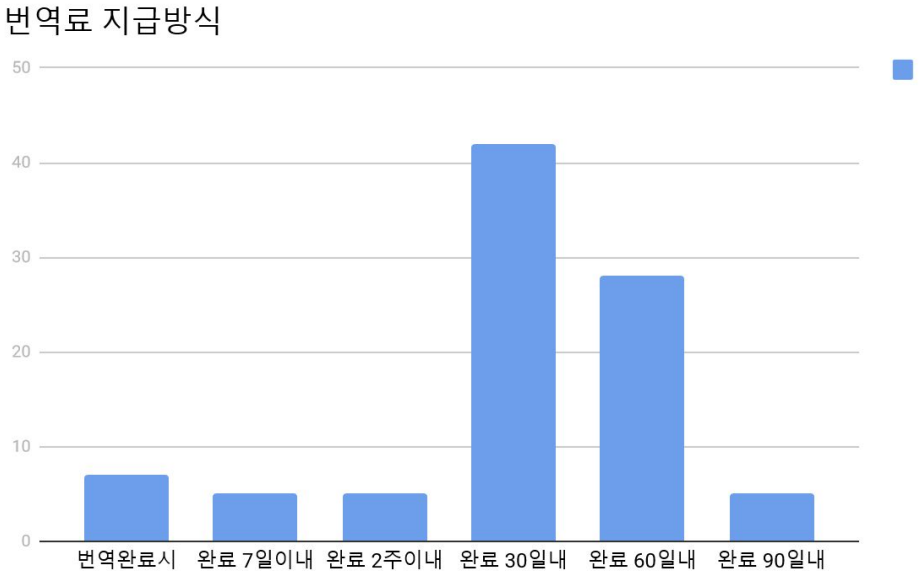
위 표는 경력 1~3년차 응답자중에서 전공안함과 교육이수를 기준으로 비교한 것이다.
전공안함 응답자 다수가 최고 요율이 81~115원에 머물러 있음을 볼 수 있고, 번역 교육을 받은 응답자의 다수가 116~150원에 머물러 있음을 볼 수 있다. 전체 응답자 76명에서 전공안함을 선택한 응답자 수가 57명임을 기억하면 더 높은 요율에 접근할 수 있는 조건이 어느 쪽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교육을 받은 응답자가 보다 높은 요율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며 전공을 하지 않아도 특수 분야(법률, 영한/한영)의 경우 높은 요율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교육기관 이수, 전공, 대학원을 졸업한 기준으로 좀 더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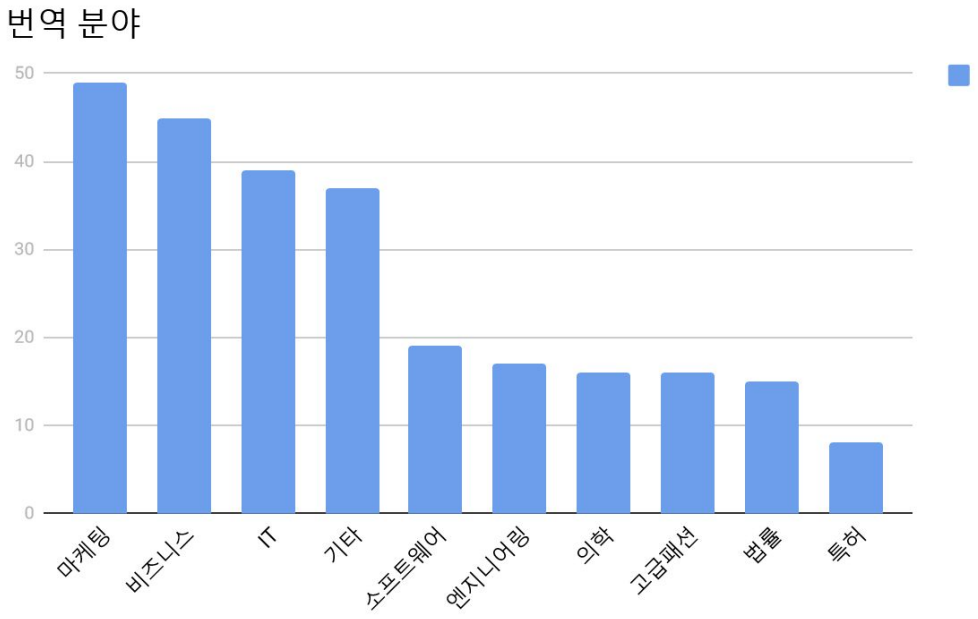
전체 76명에서 전공안함 응답자를 제외한 29명중에 경력 1~3년차 번역 교육이나 전공, 대학원을 졸업한 응답자의 최고 요율 수치는 위와 같았다. 번역 전공을 하였으나 최고 요율이 80원 이하라고 응답한 1명의 번역 분야는 “마케팅, 엔지니어링, 고급 패션”이었다.

8. 번역료 지급 기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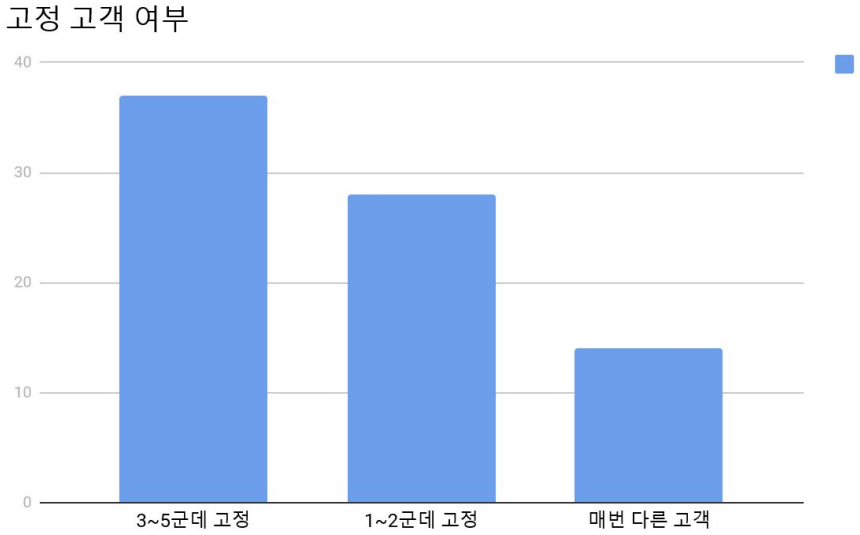
번역 완료후 30일이내에 대금을 지급받는다는 응답이 42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60일이내로 28명이었다. 해외 에이전시와 거래를 하는 경우 60일이내 대금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번역 완료시 대금 지급을 받는다는 응답자는 7명으로 10%도 미치지 못했다.

9. 최고 요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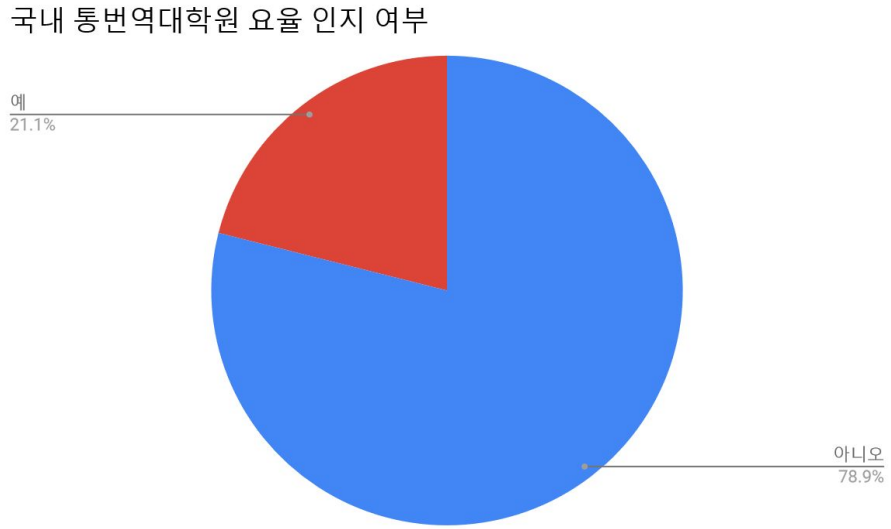
응답자가 다루는 번역 분야를 살펴보았다. 수치가 높은 부분이 수요가 많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며 수치가 낮은 것은 꼭 수요가 적다고 볼 수는 없다. 전문성을 요하는 작업의 경우 공급이 적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높은 요율을 받게 되는 조건이 될 수 있다고 추측된다.

10. 고정 고객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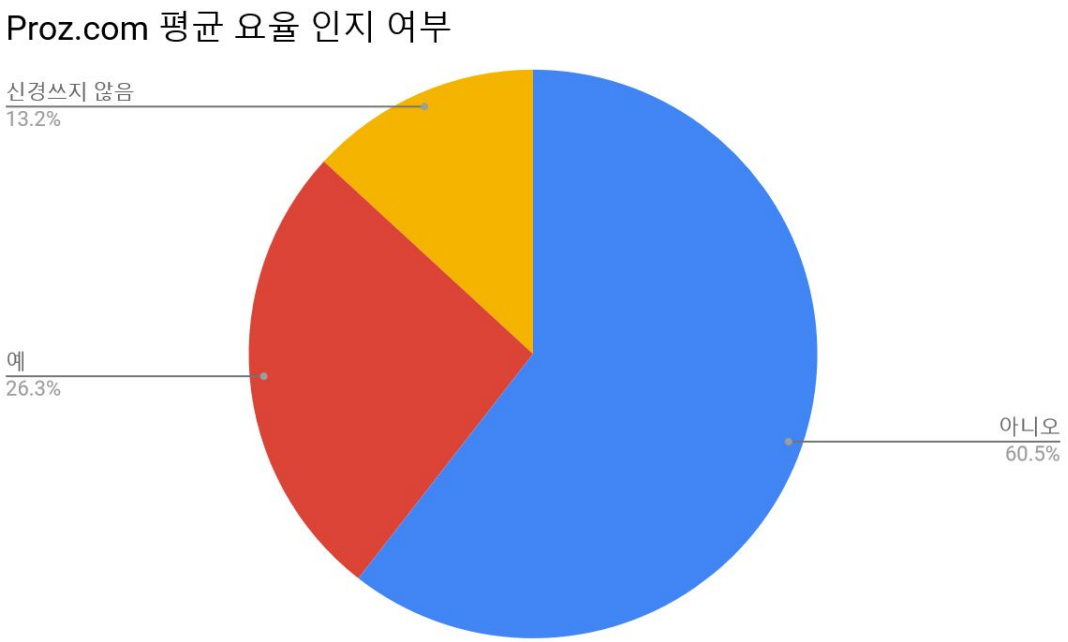
주로 3~5군데 고객과 거래를 한다는 응답이 37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2군데 고객과 거래한다는 응답은 28명, 매번 다른 고객과 거래한다는 응답은 14명이었다.
응답자의 80% 이상이 고정 고객을 확보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11. 국내 통역대학원의 제시 요율 인지 여부



‘국내 여러 통역대학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번역 요율을 알고 있었다’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전체 응답자 76명중 60명(78.9%)이 국내 통역대학원에서 제시하는 번역 요율에 대해 모른다고 답하였다.
다시 한번 참고를 위해, 국내 여러 통역대학원에서 제시하는 번역 요율표를 첨부1.에 첨부한다. 번역 요율의 기준이라고도 볼 수 있는 통역대학원의 제시 요율은 예상보다 낮은 곳도 있으며 이 기준을 정답으로 볼 수는 없으나 현재 기준점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아직 일부 번역가들이 번역 요율을 결정하는 것에 애를 먹고 있다면 이 자료들을 참고하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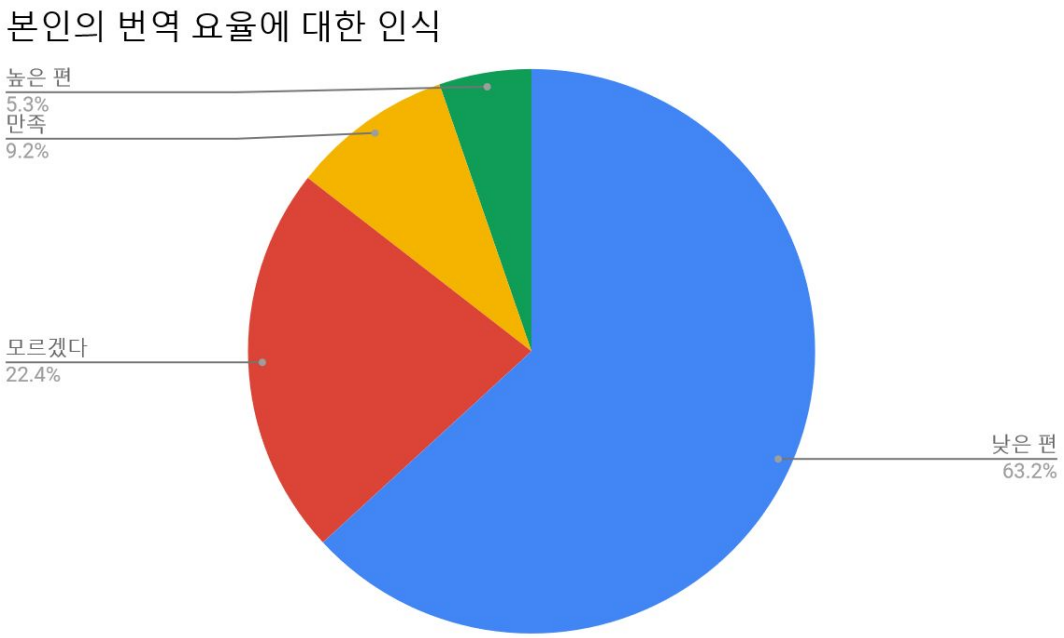
12. Proz.com 영어>한국어 평균 번역 요율 USD $0.09(102원) 인지 여부



현재 Proz.com 회원들의 영어>한국어 번역 평균 요율은 USD $0.11(124원)이다.
본 설문을 작성할 당시 업데이트된 내용을 미처 확인하지 않고 몇 년전 평균 요율을 바탕으로 질문을 작성하였다.
Proz.com 회원들의 평균 번역 요율이 궁금하다면 Google에서 English into Korean translation rate 이라 검색하면 상단에 프로즈닷컴에서 제공하는 검색결과가 나온다.
(결과 링크)
국내 여러 통번역대학원에서 제시하는 요율을 감안하면 Proz.com 회원들의 평균 요율은 높은 편임을 추측할 수 있다. Proz.com의 회원들의 번역요율도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이 긍정적이다.
'Proz.com 회원들의 영어>한국어 번역 평균 요율이 USD $0.09임을 알고 있었다'라는 질문에 아니오로 답한 응답자가 46명(60.5%), 예로 답한 응답자는 20명(26.3%)이었다. 설문 참여자의 절반 이상이 Proz.com 회원들의 번역 요율을 인지하고 있지 않은 것을 추측할 수 있다.

현재 번역 요율의 흐름과 상황에 전혀 무관한 결과로 보기는 어렵겠다.
다른 번역가들의 요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각자의 기준으로 요율을 선택하기 쉽고 클라이언트가 제시하는 요율에 응하기가 수월하기는 사실이나 그렇게 되면 번역가의 노동에 대한 댓가가 정당하게 책정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기는 어려워보인다.
이 정보를 앎으로 인해 큰 변화가 생긴다기 보다, 기준을 알고 그 기준에 근접하게 다가가려는 노력이 있을 때에 번역가의 전문성과 노동에 대한 존중과 댓가가 정당하게 책정되리라 기대할 수 있겠다 생각된다.

13. 본인의 번역 요율에 대한 인식



응답자에게 자신의 번역 요율을 어떻게 평가하는 지 질문했다.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나의 번역 요율은 낮은 편이다' 응답자 48명(63.2%), '나의 요율 수준에 대해 잘 모르겠다' 응답자 17명(22.4%), '나의 요율에 만족한다' 응답자 7명(9.2%), '나의 요율은 높은 편이다' 응답자 4명(5.3%)이었다.

자신의 번역 요율이 높은 편이다를 선택한 응답자의 프로필은 아래와 같았다.

	언어쌍	경력	전공여부	분야	최고 요율
A	영 > 한	10~20년	전공안함	비즈니스, IT, 마케팅	210원 이상
B	한 > 영	20년이상	전공안함	비즈니스, IT, 법률,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210원 이상
C	영 <> 한	10~20년	전공안함	기타	151~180원
D	영 > 한	5~10년	번역대학원졸업	IT, 마케팅, 기타	151~180원

전공을 한 경우 비교적 적은 경력에 비교적 높은 요율을 받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전공을 하였다고 반드시 더 높은 요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위 결과를 통해 추측할 수 있다. 번역 요율을 책정하는 과정에 개인의 비즈니스 기술, 번역 품질, 특수 분야 등의 요인들이 작용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겠다.

응답자들의 60%이상이 자신의 번역 요율은 낮다고 평가했다. 번역가들이 자신의 전문성과 노동의 대가에 대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을 추측해볼 수 있다.

설문결과 보고서를 마치며

번역 요율이 어떤 요인으로 인해 계속 떨어지는 추세가 될 수는 있어도 그러한 흐름이 좋은 품질의 번역을 제공하는 번역가의 생계를 막기는 어려워 보인다. 고객들은 언제나 좋은 품질의 번역물을 기대하고 믿을만한 번역가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좋은 번역 품질로 평가할 수 있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100% 투명한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다.

품질이 좋은 번역가들은 계속 생존해나가겠지만 특별한 기준이나 체제가 없는 현재 번역 생태계에서 초보 번역가들의 생존은 번역률 인하 또는 턱없이 낮은 번역료에 동의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낳고 있다.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로서 취할 수 있는 대응은 자신의 번역 요율에 대한 적절한 인지와 최저선 이하의 제안은 거절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현재 자신의 번역 요율의 입지를 인지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부당한 에이전시의 번역요율에 거절할 힘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번역가에게 감히 $0.01로 법률문서 100,000단어를 의뢰하는 에이전시는 없을 것이라 예상해본다.

최근 한 클라이언트가 영한 단어당 $0.04로 100,000 단어분량의 제안을 해왔으나 거절했다. 최저가를 고수하는 에이전시는 시스템 운영에 비용을 투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머지않아 문을 닫는다. 저렴한 번역료로 대량 번역물을 의뢰받았다면 그 건으로 거래를 마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번역가의 건강한 삶을 위해 근무 시간, 휴식시간, 여가시간, 자기계발 시간 등을 확보하려면 저렴란 번역료를 지불받아서는 불가능한 이야기다. 현재 부당한 조건으로 번역을 제공하고 있다고 해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고민한다면 더 나은 삶을 향한 적절한 선택이 필요하다. (번역가들이 번역 요율이 인형에 눈붙이는 것만 못해요. 라는 가슴아픈 이야기를 더는 하지 않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
조금 다른 이야기이지만, 최근 한 중국어 통역가의 인스타그램에서 흥미로운 의견을 읽었다. “고객들은 결과물의 중요도에 따라서 가격을 매긴다.” 통역에 관한 이야기였지만 번역에도 해당되리라 보여진다. 고객과 번역료 조율에 임할 때 이 점을 적용하면 좋겠다.
전업 번역가라면 마케팅에도 관심을 두어 더 나은 가치를 인정받게 되기를 바라며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2에 첨부한다.

다시 한번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건강한 번역가의 삶을 누리길 기도한다.

첨부 1. 국내 통번역대학원 제시 번역 요율

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 통번역센터 번역요율

www.sufs.ac.kr/sufs_itc/yu/yu_02.asp

HOME > 요율안내 > 번역요율안내

번역요율안내

■ 번역 요율안내

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 통역번역센터 번역요율 안내입니다.

1. 번역료(문서)

가 .한국어 - 외국어

(단위 : 원)

귀착언어	번역료	기준
영,일,중,불,독,서,아,노어	₩80~250원 (감수료 포함)	원문기준 글자1자당 (공백포함)

- 파워포인트 번역은 (한-외) 한국어 230단어당 ₩100,000 – ₩150,000 (감수료 포함)
- 파일형식, 언어 및 난이도에 따라 차등 적용함.
- 번역료에는 20%의 외국인 감수료가 포함되어 있음.
- 당일 번역일 경우 급행료 30%가 추가됨.

나. 외국어 - 한국어

(단위 : 원)

출발언어	번역료	기준
영,일,중,불,독,서,아,노어	₩25~100원	원문기준 글자1자당 (공백포함)

- 파워포인트 번역은 (외-한) 외국어 230단어당 ₩40,000 - ₩60,000
- 번역료는 파일형식, 언어 및 난이도에 따라 차등 적용함
- 당일 번역일 경우 급행료 30%가 추가됨.

이화여대 통번역연구소 요율표

요율표

한국어 → 외국어

귀착언어	번역료	비고
영어 / 불어	140원~300원(원문 자당)	난이도에 따라 차등적용
중국어	90원~180원(원문 자당)	난이도에 따라 차등적용
일본어	100원~180원(원문 자당)	난이도에 따라 차등적용
최소번역료 (모든 언어)	20만원	일정분량 이하의 문건일 경우 최소번역료 적용

* 기타 언어의 경우 (서어, 포어, 독어, 아랍어, 이탈리아어, 러시아 어 등) 요율은 140-300원

외국어 → 한국어

출발언어	번역료	비고
영어 / 불어	150원~ 250원(원문 단어당)	난이도에 따라 차등적용
중국어	60원~140원(원문 자당)	난이도에 따라 차등적용
일본어	60원~140원(원문 자당)	난이도에 따라 차등적용
최소번역료 (모든 언어)	10만원	일정분량 이하의 문건일 경우 최소번역료 적용

* 익일 납품 요청 시에는 총 번역료의 100%가 급행료로 추가 청구됨.
(그 외의 경우에는 총 번역료의 50%의 금액으로 급행료 적용)

중앙대학교 통번역연구소 요율표

1) 한국어에서 외국어로 번역할 경우

• 해당 외국어의 특성에 따라 기본적인 단가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구분	언어	단가기준	단가	비고
1그룹	영어	한국어 원문 1자(공백포함)	최저 60원	200자 원고지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12,000원~에 해당
	일어	한국어 원문 1자(공백포함)	최저 60원	
	중국어	한국어 원문 1자(공백포함)	최저 60원	
2그룹	독어	한국어 원문 1자(공백포함)	최저 66원	1그룹 언어에 비하여 10%의 가중치를 적용 (예: 1그룹 언어의 단가가 60원일 경우, 66원)
	불어	한국어 원문 1자(공백포함)	최저 66원	
	서반아어	한국어 원문 1자(공백포함)	최저 66원	
3그룹	러시아어	한국어 원문 1자(공백포함)	최저 72원	1그룹 언어에 비하여 20%의 가중치를 적용 (예: 1그룹 언어의 단가가 60원일 경우, 72원)
	아랍어	한국어 원문 1자(공백포함)	최저 72원	

2) 외국어에서 한국어로 번역할 경우

외국어에서 한국어로 번역할 경우에는 각 외국어의 특성에 따라 단가 기준을 달리 적용합니다.

언어	단가기준	단가	비고
영어	영어 1단어	최저 80원	난이도에 따라 적용
일어	일어 1자	최저 30원	난이도에 따라 적용
중국어	중국어 1자	최저 40원	난이도에 따라 적용
불어	불어 1단어	최저 80원	난이도에 따라 적용
독어	독어 1단어	최저 100원	난이도에 따라 적용
서반아어	서반아어 1단어	최저 100원	난이도에 따라 적용
러시아어	러시아어 1단어	최저 100원	난이도에 따라 적용
아랍어	아랍어1단어	최저 100원	난이도에 따라 적용

첨부 2. 번역가를 위한 마케팅

https://www.marketingtipsfortranslators.com/

https://www.marketingtipsfortranslators.com/podcast-2/

https://www.proz.com/forum/marketing_for_translators-890.html

https://translationjournal.net/images/e-Books/PDF_Files/The%20Little%20Book%20of%20Social%20Media%20Marketing%20for%20Translators%20-%20PDF.pdf

https://www.onehourtranslation.com/translation/blog/marketing-translators